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누군가의 품격을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품격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언행을 듣고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품격을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품격은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다. 맥락을 끊어 버리고 말꼬리나 잡는 유희를, 미봉에 빠진 뭇매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계몽이나 시급한 공익 사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품격의 경박함은 모두에게 파급효과를 낳는다. 특히 공적인 언행일 때 더욱 그러하다.

한 소설 관련 단체는 흔히 쓰이는 '소설'이라는 전문가가 경고를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는 소설과 거짓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문성' 높은 지적과 훈계를 하면서 상처받은 자

참을 수 없는 품격의 왜소함에 대하여

공심을 호소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싸움을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들의 품격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애초부터 없는 품격을 무슨 재주로 논란단 말인가.

차라리 트로이 전쟁에서 왕위 계승자로서 트로이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헥토르를 보자. 헥토르의 동생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헥토르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투를 해야만 했다. 상대는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영웅 아킬레우스였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명성을 잘 알기에 최고의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제안을 한 가지 한다.

승패가 가려지면 "나는 그대에게 모욕을 가하지 않고 그대의 이름난 투구를 벗긴 다음 그대의 시신은 돌려줄 것이니 그대도 그렇게 하라." 헥토르는 전투의 승리자는 망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 주자고 제안할 것이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심에 찬 아킬레우스는 단번에 거절한다.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와의 싸움은 복수이자, 원한을 푸는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써 따지자면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투구를 친구에게 준 탓에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인줄 알고 친구를 죽였으니,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사실 자신에 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말로 자괴감이라고나 해야 할까.

헥토르는 고대 로마인들로부터 최고의 품격과 고귀함을 갖춘 인물로 여겨졌다. 자신보다는 모두를 생각했고, 이익을 위해서 비열과 야만을 자행하는 일은 없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동생에게 있다고 비판한 사람도 헥토르다. 그는 '좋은 형남'이 아닌, 동생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야단을 치는 '매정한 형남'이었다.

반면에 아킬레우스는 최고의 명장이지만, 사적인 감정에 따라 문제를 결정하는 인물이다. 내 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잔혹한 영웅인 것이다. 그는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헥토르를 죽이고 주검을 전자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모두의 앞에서 야만적인 모멸을 가한다.

쉽게 상처받는 자긍심과 자괴감이 너무 낮은 공격 자극점이 문제라고 한다. 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폭발한다는 의미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이

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늘 위협하며,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애초부터 자긍심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자긍심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하지 않았던가. 이에 따르면, 자긍심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수 없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쪽에서는 시대착오적 교양주의로 국민 계몽을 시도하는 속물스러움을, 다른 한쪽에서는 법을 위해서 기꺼이 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기모순에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왜소함의 정점을 드러낸다.

정신의 왜소함을 늘 탄식했던 나체는 '사소한 것에 대해 가시 돌쳐 있는 것, 그것은 기껏 고슴도치에게나 필요한 지혜'라고 말했다. 아무 때나 날을 세우는 이 유는 무기력과 정체된 정신의 반증이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내세워 왜소함을 숨기려 한다는 의미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것이 곧 상처 난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社說

‘유엔 기후변화 총회’ 여수 유치에 총력을

2023년 전남에서 지구촌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잇따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이어 전남도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8차 유엔(UN)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국내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열어 환경부의 COP28 유치 도전을 승인했다.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환경 협약이다.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 당사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회의다.

정부는 COP28 유치 확정 시 지자체 공모 또는 지정 방식으로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유치전에 뛰어난 국가는 현재 한국 외에 없는 데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이 유일하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전남 개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5월 경

남도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COP28을 공동 유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라는 동서화합 의미까지 담아낸 것이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는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등 전남 5개 시군,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 등 경남 5개 시·군이다.

COP28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되면 전남 동부권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순천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2023년 전남에서만 두 개의 굵직한 국제 행사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COP28에는 198개 회원국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및 개최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구촌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해 온 상징적인 도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도민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COP28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거리 두기 완화되지만 긴장 늦춰선 안 된다

광주시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사태에 따라 2단계로 상향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1단계로 전환했다. 지난 달 초 2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7일간 해외 유입 외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이 지역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은 시민의 저력도 바탕이 됐다.

일단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명부 작성,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 개최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열고 지역 어린이집도 오늘부터 정상 운영한다.

하지만 방역은 금물이다. 감염원이 확실한 확진자가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중 접촉 증가로 인해 언제든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휴가 특수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도 아직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위험 단계다. 자칫 방심하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구축한 지역사회 방역망이 하루 아침에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정정보도시범지역임을 과시했다. 한 달 여 동안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아픈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생활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재검검해야 한다. 시민들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상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교통체계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현재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무생물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그동안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냐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위기는 그간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를 해왔던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2050년은 인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을 유발한다. 최근 코로나나 일회 전 세계가 공장 가동과 승용차 이용을 멈추자 대기의 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듯이, 자동차의 증가는 환경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려면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도심에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아직은 고가의 가격이 문제지만 기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35년에는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 총 승용차 등록 대수의 33%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부합하여 충전시설 용지를 확충하는 것과 같은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동차 이용 극대화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친화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만간 완공될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도시 체계를 재편하고 역을 중심으로 버스, 자전거, 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태양광 모범 도시 보봉의 경우, 트램 역 주변에 마을을 건설하고 단지 내 차량 보유와 진입을 엄격히 규제한다. 단지 내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도록 단지를 개발했다. 광주시도 새로운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보봉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염두에 두고 단지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교통 관련 기술 발달 추세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전 2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미 운전자 없이 실시간 무선통신으로 차량 스스로 인공지능에 의해 운행하는 자율자동차가 등장했다. 당분간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거리에서 같이 주행하는 환경에 대비한 교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전기자동차가 대폭 늘어나고 차량 공유와 승차 공유가

일반화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승차 공유 시스템인 '디디추싱'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가 기존 택시와 마찰이 있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승차 공유의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자동차를 위한 도시 공간 구조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차량 소유가 줄어들게 되면, 주차장의 수요도 줄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도시 공간을 공원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자동차와 승차 공유가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현 시점은 교통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좋은 때다. 시민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나가도록 승용차 억제 정책과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자. 승차 공유와 자율자동차 운행이 향후 20년 안에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계획과 법규 등을 정비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한 대중교통과, 환경을 고려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광주시가 소문이 나게 되면, 현재 우려되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고

코로나 관광특수 누리는 청정지역 진도



정현인  
진도부군수

코로나19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에 빠져 있다. 관광객 급감과 소비 부진으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나 헤쳐 나갈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난 수준의 시국에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자리잡은 '대한민국 민속 문화예술특구, 진도군'이다.

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 'kt 빅데이터 관광객 유입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관광객은 31만1081명, 5월 관광객은 37만868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22.8%나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관광객이 늘어나 진도 군민들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광객 증가는 진도 군민의 결집력 높여주는 대가다. 진도군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72일간 밤낮없이 진도휴게소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했다. 발열검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고난의 싸움이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다. 군민들은 안심하였고, '진도는 청정지역'이라는 바이벌마케팅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트로트 가수로 떠오른 송가인 신드롬도 관광객 증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진도=송가인'이라는 등식 성립으로 많은 송가인 팬들과 트로트 마니아들이 진도를 찾고 있다. 자연스레 송가인 고향집도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여기에 진도군은 관광객 유치와 특산물 판매를 위해 인기 tv 프로그램 유치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허영만의 백반기행', '백종원 맛남의 광장' 방송을 통해 김·대파 소비 촉진은 물론 전국의 많은 식도락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명 '솔비치 진도'는 주말에

만실을 기록하고, 7월부터 8월말까지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되어 전국 대명 리조트 17개소 중 단연 투숙률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정지역, 힐링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진도는 관광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 하듯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요즘 진도에서는 주말이면 여태껏 보지 못했던 진풍경이 펼쳐진다. 허름한 시골 마을 식당에 외지인들이 진도 토속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마트와 숙박업도 성업(盛業)이다. 당연히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졌고 모든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도군에서 전국 춘계레비리그 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려했지만 선수를 포함한 대회 관계자 모두가 검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무관중 경기 진행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체육 행사 개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대한레비리회에는 아시아 레비리연맹의 대회 개최 노하우 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진도군이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이라는 사

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달아 관내 숙박업소와 식당 등도 줄거늘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모범 모델이 된 k-방역에도 불구하고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역습은 조금만 방심하면 소리 없이 다가오곤 한다. 진도군은 다시 교배를 조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진도휴게소에서는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재개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감소로 하계휴가철 국내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개 해수욕장 중 급강·가계 2개소는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성숙한 선진 군민 의식으로 종교행사나 소모임 자체, 집이 머무르기, 마스크 쓰기, 개인위생 철저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모두가 인간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는 청정 진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3만 진도 군민은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진도군을 지키고 있다. 이런 진도 군민의 결연한 마음을 모아 '청정도시, 치유도시 - 보배섬 진도'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無等鼓

"철들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따라 불렀지요. 옛 노래들이 언제부터인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떠올리고, '남쪽 나라 내 고향'은 어디쯤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허리춤에 달아 주는 '도토리묵'은 어떤 맛일까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제야 그 노래들을 제대로 불러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한 곡 한 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주현미가 최근 발간한 '추억으로 가는 당신'은 불후의 명곡 50선 통해 한국 가요

트로트 전성시대

대중문화 대명사로 치부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러나 지금 트로트가 기성세대는 물론 계층과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오늘의 트로트 열풍은 지난해 또 방송국에서 기획한 '미스 트롯'이 기폭제가 됐다.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방식으로 풀이낸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애뜻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 가운데 진도 출신 송가인은 발군의 가창력, 울림 있는 음색, 노래에 대한 독창적 재해석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중들은 드디어 이류라고 폄하되는 B급 문화 이면에 드러워

진 진정성을 알아보게 됐다. 그러나 작금의 '트로트 흥수'는 지난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무명가수 오디션과 잇힌 스타를 경연에 참여시키는 방식 등 유사 프로그가 난립하고 있는데 실의 고단함과 쓸쓸함, 결집과 허기를 위로하던 본래의 맛이 퇴색된 듯해 아쉽다. 가끔은 허름한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던 한 소절의 노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무심한 듯 담담하게 읊조리던 트로트가 그리워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